

< 첨부파일 2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1> 사기로 의심되는 헤어 드라이어 광고

A씨는 2019년 1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단 하루만 58,800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주문함. 그러나 며칠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계속 한정판매 광고가 뜨고 같은 내용의 후기가 날짜만 바뀌어 올라오는 등 사기사이트로 의심되어 판매자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사례2> 사이트 폐쇄 및 사업자 연락 두절

B씨는 2018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53,200원에 신발을 구매하고 이메일로 주문 확인서를 수신함. 2018년 1월 상품 배송 완료 이메일을 받았으나 상품이 오지 않아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3>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 가품 판정

C씨는 2018년 12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함. 이후 배송을 기다리던 중 세관을 통해 운동화가 가품이니 반송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음.

<사례4> SNS 광고를 보고 주문한 가방 미배송

D씨는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49,9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함. 구입 직후 후기 검색 과정에서 사기의심 사이트임을 알게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음.